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2) 청산별곡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청산별곡」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청산'과 '바를'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 묻거나, 각 연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각 연의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
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의 이상향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각 연을 분절하여 작품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화자의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
- ④ ㉣: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담긴 표현이다.
- ⑤ ㉤: 시적 화자가 삶의 고뇌를 잊기 위해 선택한 도구이다.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A]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
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
[B] 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C]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
라.
[D]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
[E] 잇고.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2.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려 후기에는 안으로는 무신들의 난이 계속 되면서 정치적으로 어지러웠고, 밖으로는 몽고나 왜적의 침입 때문에 백성들이 안온했던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다. <청산별곡>은 이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비애와 고독,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향을 추구하는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① [A]: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이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즉, 속세에 있는 '갈던 밭'을 바라보는 거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기에 속세에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 ② [B]: 현실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청산에 들어왔으나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이 되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 ③ [C]: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게 되었으니, '돌'에 맞아 '우는' 모습이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 ④ [D]: '사슴'이 '희금'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현실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
- ⑤ [E]: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조롱박꽃' 같은 희망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독한 술'을 빚었을 거야. 술이 친구가 되어주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

3.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상적 공간에서의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다.
- ② 운명적 고통 앞에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절망적인 고독을 느끼며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부정적 현실을 해결해 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 ⑤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에 대한 미련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궁핍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로 화자가 청산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이 된다.
- ② ㉡은 화자와 달리 자유로운 대상으로 화자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 ③ ㉡은 낮과 다른 고독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통해 화자는 자기반성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삶의 속성을 나타내는 소재로 화자의 인생관을 보여 준다.
- ⑤ ㉡은 현실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기 위한 소재로 인생고의 우수적 표현이다.

5. 윗글은 시적 화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윗글의 시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를 속세에서 떠난 은자(隱者)로 본다면 6연의 '바를'은 화자가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도피하려는 은거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본다면 2연의 '새'는 이별의 정한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본다면 4연의 '낮'은 '밤'과 달리 임과 행복했던 과거를 의미한다.
- ④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6연의 '늑막자기', '구조개'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가 소망하는 소박한 삶으로 볼 수 있다.
- ⑤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8연의 '설진 강수'는 지배층의 횡포로 인한 시름을 잊게 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신유형

「청산별곡」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후렴구의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 시어의 현대어 해석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한림별곡」의 후렴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청산별곡」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표현과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기>로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상황을 제시한 후,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므로,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을 꼼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말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셔 희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무신의 난과 몽고의 침략 등 내우외환이 지속되던 고려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견디기 힘든 현실적 고통에서 벗

어나 새로운 세계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당대 민중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 화자가 추구하는 소박한 삶을 상징한다.
- ② ㉡: 화자가 지향하는 곳으로 '청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③ ㉢: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 ④ ㉣: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하게 된 운명적 삶에 대해 체념하고 있다.
- ⑤ ㉤: 화자는 현실의 괴로움을 술을 통해 달래려고 한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주된 정서와 부합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의미 없이 악률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 ③ 악기 소리의 음성 상징어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 ④ 'ㄹ, ㅇ'의 연속적 사용으로 어감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⑤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성을 준다.

8.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너보다
- ② ㉢: 많은
- ③ ㉣: 이끼 묻은
- ④ ㉤: 이력저력
- ⑤ ㉤: 사랑하는 사람도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ㄱ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 [A]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ㄴ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ㄷ 우러라 우러라 새어 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 [B]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 ㄹ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ㅁ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 [C]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ㄴ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ㅂ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 [D]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ㄴ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셔 희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9.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청산별곡>은 고려 속요가 갖는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a-a-b-a'의 구조나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거나 3음보의 음보율과 3·3·2조의 음수율을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려 속요에 많이 나타나는 후렴구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

기도 했는데, 이때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장치는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청산별곡>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곤 하는데, 이는 작품의 화자를 ㉢전란(戰亂)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 ㉣실연한 사람, 속세의 번뇌를 떨치고자 하는 지식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A]에서 고려 속요가 갖는 특징인 3음보의 음보율과 3·3·2조의 음수율을 찾아볼 수 있다.
- ② [B]의 첫째 줄은 [A]의 첫째 줄과 마찬가지로 'a-a-b-a'의 문장 구조를 띤다.
- ③ [C]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화자를 ㉢로 본다면 화자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사례를 보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D]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화자를 ㉣로 본다면 화자가 실연한 후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A]~[D]의 각 연의 마지막 행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은 ㉠의 예로 볼 수는 없으나 ㉡의 예로 볼 수는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넝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혀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녹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살어리랏다'를 반복하여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울고 있는 새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시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낮의 상황과 대비되는 '밤'의 상황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삶의 고통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⑤ ㉤: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침입 등 많은 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극도의 생활고에 쫓겨 유랑민으로 전락했다. 백성들은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火田)을 일구고 살거나, 바닷가에서 굴, 조개를 캐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노래의 '자연'은 화자가 선망하며 지향하는 대상이자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① 2연의 '새'는 화자와 대조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 ② '물 아래'는 화자가 선망하며 지향하는 공간이겠군.
- ③ '잉 무든 장글란'에서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겠군.
- ④ '돌'은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겠군.
- ⑤ '강수를'에서 '강술'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겠군.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6연에는 일상적 삶의 터전과 대비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② 2연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다른 대상에 이입하는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4연은 대비되는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상반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7연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8연에서 화자는 현실적 고뇌와 절박한 심정을 '강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13~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A]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B]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혀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C]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님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D] 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2) 청산별곡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청산별곡」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거나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작품의 화자를 '유랑민', '실연한 사람', '지식인'으로 보았을 때,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구분하여 쓰라고 하거나, <보기>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제시한 후, <보기>의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행을 본문에서 찾아 쓰라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혀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딴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1.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윗글에서 찾아 시행 전체를 적되, 주어진 조건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 나타난 시행
-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 시행

<조건>

-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은 ~에 드러나 있고,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는 ~에 잘 드러나 있다.'의 형식으로 쓸 것

2. 뒷글을 읽고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적으시오.

<보기1>

<청산별곡>에서 몇몇 시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감상자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3연의 '가던 새'를 '잡을 수 없는 권력'으로 해석하고, '잉 무든 장글란'을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하여, <청산별곡>을 현실의 번뇌를 잊으려는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한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그중 하나이다.

<보기2>

	유량민	실연당한 여인
가던 새	㉠	떠난 임
잉 무든 장글란	㉡	㉢
해석	㉣	실연의 아픔을 잊고자 하는 여인의 비애

- ㉠:
- ㉡:
- ㉢:
- ㉣:

3. 뒷글과 <보기>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화자의 욕망과 슬픔이 드러난다'고 보았을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난 화자의 심리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부분을 뒷글에서 찾아 5어절로 쓰시오.

<보기>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
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욱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 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 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青) 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어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의 콩밭 누렁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 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억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둘 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㉞: 윗글의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연을 구분하고 있으나, 특정한 의미가 없는 후렴구이므로 주제를 통일성 있게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① ㉠: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현실 도피의 공간,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③ ㉡: 4연의 밤은 화자의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④ ㉢: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시적 화자는 술을 마시며 삶의 고뇌를 잊고자 한다.

2. 정답 ⑤

[E]: 화자는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 즉 술을 마시며 현실의 고뇌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즉 '조롱박꽃'은 누룩을 수식하기 위한 것일 뿐, 희망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다.

① [A]: 시적 화자는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청산'으로 떠난 유랑민이므로, '물 아래'를 바라보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② [B]: 화자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산에 왔지만, 아무도 없는 청산에서 밤이 되자 절대적인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③ [C]: '돌'은 불행한 운명을 의미하는 시어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④ [D]: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답 ④

윗글의 화자는 7연에서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으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① 윗글의 화자는 이상향인 청산에서 '멀위랑 드래'를 먹는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다.

② 윗글의 화자는 5연에서 운명적 고통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윗글의 화자는 4연에서 '밤'에 절대적 고독을 느끼고 있다.

⑤ 윗글의 화자는 현실을 떠나 '청산', '바를'로 가고 싶어 하는 동시에, 3연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4. 정답 ⑤

㉠은 현실의 고뇌로부터 일시적이거나 벗어나기 위한 소재로 현실적 괴로움을 술을 통해 달래려는 인생고의 우수적 표현이다.

① ㉡은 화자가 청산에 가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은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존재로, 화자의 비애와 슬픔이 이입된 대상이다.

③ ㉣은 낮과 비교해 절대적 고독을 느끼게 되는 시간일 뿐, 자기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은 화자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적, 숙명적 고통을 의미하므로,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삶의 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5. 정답 ③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볼 때, '낮'은 절대적 고통의 시간인 '밤'과 비교해 이력저력 지내온 시간일 뿐, 임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① 화자를 속세에서 떠난 은자로 본다면, '청산'과 '바를'은 속세에 염증을 느낀 은자가 은거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본다면, 2연의 '새'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④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늑모자기', '구조개'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가 '바를'에 가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⑤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8연의 '실진 강수'는 삶의 터전을 빼앗은 지배층의 횡포로 인한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도구로 볼 수 있다.

6. 정답 ②

- ㉞: '청산'과 대비되는 속세를 의미한다.
 ① ㉠: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한 삶을 상징한다.
 ③ ㉡: 울림소리 'ㄹ', 'ㅇ' 음을 반복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④ ㉢: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숙명적 고통,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이 드러난다.
 ⑤ ㉣: 현실적 괴로움을 술을 통해 달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7. 정답 ①

- 특정한 의미 없이 악률에 맞추기 위한 후렴구이므로 화자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②, ③, ④, ⑤ ㉠은 특정한 의미 없이 악률에 맞추기 위한 후렴구로,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서 흥을 돋우고, 'ㄹ, ㅇ'의 연속음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나타내며, 연을 구분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8. 정답 ⑤

- ㉠: '미워할 사람도'이다.
 ①, ②, ③, ④ ㉡~㉣의 현대어 해석으로 적절하다.

9. 정답 ⑤

- [A]~[D] 각 연의 마지막 행에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의미 없이 악률을 맞추기 위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① [A]에서 3·3·2조 3음보가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 속요는 예외가 많기는 하지만 <보기>를 참고할 때, 일반적으로 3·3·2조 3음보의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② [A]와 [B]의 첫째 줄은 모두 'a-a-b-a'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경우,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물 아래', 즉 속세에 있는 자신이 갈던 밭을 바라보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D]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볼 경우, 화자가 이별 이후 밤에 홀로

절대적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정답 ⑤

- ㉠: 화자는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을 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① ㉡: '살어리랏다'를 반복하여 '청산'을 지향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 비교법을 활용해 울고 있는 새보다 자신이 더 시름이 많다고 말하며 자신의 비애와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③ ㉣: 이력저력 지내온 '낮'과 대비하여 '밤'에 느끼는 절대적 고독을 강조하고 있다.
 ④ ㉤: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숙명적 고통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1. 정답 ③

- <보기>를 참고할 때,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끼가 묻은 쟁기를 통해 백성들의 생활고를 확인할 수 있다.
 ① 2연의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하며, 화자는 '물 아래'를 보며 미련을 보이고 있을 뿐, 속세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서도 '자연'을 화자가 선망하며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윗글의 '청산', '바를'이 화자가 선망하며 지향하는 공간이다.
 ④ '돌'은 운명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시어일 뿐, 화자가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⑤ '강수'는 화자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재일 뿐,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12. 정답 ③

- 4연에서 낮과 대비하여 밤의 절대적 고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이력저력 지내온 시간일 뿐, '밤'과 상반된 감정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다.
 ① 1연의 '청산'과 6연의 '바를'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② 2연에서 화자의 비애와 슬픔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7연에서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8연에서 화자는 현실적 고뇌를 술을 마시며 해소하고자 한다.

13. 정답 ④

㉠에서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① ㉠은 악기 소리의 의성어이지만, 작품의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이므로 낙천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는 울림소리 'ㅇ, 르'를 첨가하여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후렴구이다. ㉡는 '이력저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음악적 효과를 위해 '르'를 첨가한 것이 아니다.

③ ㉢에는 운명적 고통에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절대자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에서 화자는 현실적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있을 뿐,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14. 정답 ⑤

ㄴ. [B]에서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존재인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비애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ㄹ. [D]에서 화자는 '청산'에 대응하는 공간인 '바를'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ㄷ. [E]에서 화자는 술을 통해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ㄱ. [A]에서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인 '청산'을 반복 제시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에 가고 싶은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화자의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ㄴ. [C]에서 화자는 운명적 고통에 체념하고 있을 뿐,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5. 정답 ③

윗글의 2연에서 화자는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비애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② 윗글 각 연의 마지막 행에는 특정한 의미 없는 후렴구가 제시되어 있다.

④ 윗글은 묻고 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윗글은 특정한 의미 없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다.

16. 정답 ②

2연에서 화자는 현실의 비애와 슬픔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대상으로부터 감정이 전이된 결과가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① '살어리랏다'를 '살고 싶구나'로 해석할 경우, 화자가 이상적 공간인 '청산'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4연의 '밤'은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의미한다.

④ 5연의 '돌'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고통으로, 화자의 비애를 야기한다.

⑤ 7연에서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7. 정답 ④

윗글은 3음보의 반복, '르, ㅇ' 음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윗글은 특정한 의미 없이 악절을 맞추기 위한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다.

② 윗글의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꾼다면, 1~4연과 5~8연이 대칭 구조를 이루어 형식적인 균형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③ 윗글은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대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윗글은 '청산', '바를' 등의 공간이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의 처지가 변화된 이유를 나타내 화자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24. **정답** ①

2연에서 화자는 현실의 비애와 슬픔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속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4연에서 화자는 밤에 절망적 고독을 느끼고 있다.

③ 5연에서 화자는 '돌'로 표현된 운명적 고통에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6연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바를'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

⑤ 8연에서 화자는 술을 통해 현실적 괴로움을 달래고자 한다.

25. **정답** ③

㉠에는 화자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가 드러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 것은 퍼즐을 완성하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③이다.

①, ②, ④, ⑤ ㉠에는 화자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가 드러나 있는데, ①, ②, ④, ⑤는 자부심, 긍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발화이다.

서술형 기출 문제

1. **정답**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은 '사슴이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에 드러나 있고,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에 잘 드러나 있다.

2. **정답** ㉠: 갈던 사례(밭), ㉡: 이끼 묻은 쟁기, ㉢: 이끼 묻은 은장도, ㉣: 고려 후기에 계속되는 전란 등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의 고통과 삶의 비애

3. **정답**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4. **정답** 3·3·2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반복,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ㄹ, ㅇ' 음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드러낸다. 'a-a-b-a' 구조를 활용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5. **정답**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에서 주객

전도식 표현이 쓰였다.

6. **정답**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일랑, 날이 무딘 병기랑, 이끼 묻은 은장도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정답** 작품의 주제 의식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8. **정답** 고려 속요는 3음보의 반복, 후렴구의 반복, 분연체의 형식을 가진다.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6105-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3.11.3

가격 1,500원

